

어린이의, 어린이를 향한, 어린이를 위한 소식지



소리 소문 없이 어린이 독자들 사이에 '인기잡지'로 소문난 간행물이 있다. 어린이책을 출판하는 문원에서 발행하는 비정기 간행물 <책마을 통신>이 그것이다. 잡지에는 어린이의, 어린이를 향한, 어린이를 위한 소식들이 가득 담겨 있다. 어린이가 주인만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유익한 정보를 총망라한 게 특징인 것이다.

“작년 봄에 1호를 냈죠. 2만부를 발행하는데 출판 일을 하면서 아이들 정보도 담고 저희 책도 소개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모두 무료 배포합니다.”

문원출판사 편집부가 직접 콘텐츠를 개발하고, 취재를 해서 만드는 이 책은 60쪽 분량에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특성화된 교육 현장을 소개하는 '학교 탐방'은 아이들과 부모님, 선생님들이 함께 나누기 좋은 정보다. 2003년 봄에 발행된 3호에는 전자도서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풍무초등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학교에 부임하자마자 학교 안팎 환경에 대해 고민하면서 종이책의 장점을 전자책에 도입하려는 선생님과 아이들 이야기가 정겹게 소개되었다. <책마을 통신>은 어린이와 작가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한다. 문원아이시리즈 중 하나인 《천재소녀 미미(가제)》를 준비중인 소중에 씨의 이야기를 담으면서 앞으로 출간될 책을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작가에 대한 정보를 담기도 했다. 이 잡지에는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문원에서 출판한 책을 소개하면서 그 책 속의 문화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페이지가 그것이다. 최근호에서는 우리 문화와 관련된 기획물을 준비하면서 우리 약기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문원에서 출간하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할 예정이다.

“큰 서점과 초등학교, 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3호에 어린이 기자단을 모집하는 공고가 나갔는데 어린이들의 호응도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아이들이 쓴 글을 소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어린이 기자단'을 구성해 어린이가 직접 취재해 기사를 쓰는 지면을 더 늘릴 예정이다. 자녀들에게 어떤 책을 읽혀야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문원의 책을 분류해 소개한 것도 좋은 정보가 된다. 학교활동 이외에 다양한 외부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책을 좋아하는 책벌레들, 아이들에게 양서를 소개하고 바람직한 지도방향을 고민하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어린이' 소식지 <책마을 통신>은 아동 전문 출판회사가 어떤 서비스로 어린이 독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가이드 역할도 해준다. **☞**

김청연 기자